



2024 파리 패럴림픽
슬로건
“모두에게
열린 대회”

함께 즐기는 전세계인의 축제!



장애인식개선교육 신문
발행일 : 2024.11.27.(수)
발행처 : 다솜반

★ 패럴림픽(paralympic)이란?

올림픽 이후 2주 뒤에 시작하여 약 10일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입니다. 창설 당시에는 'paraplegia'(하지마비)와 'Olympic'(올림픽)을 합성하여 만든 용어로 하반신 마비만을 의미했으나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다는 의미의 'parallel'(평행한, 아주 유사한)로 보기도 합니다.

★1988(서울), 2018(평창), 2020(도쿄), 2022(베이징), 2024(파리) 패럴림픽 엠블럼

올림픽 엠블럼	패럴림픽 엠블럼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자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태극문양을 변형하여 도안한 1988 서울 패럴림픽 엠블럼은 그 뛰어난 창의성과 심미성으로 주목을 받아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에서 아예 올림픽의 오륜기에 대응하는 패럴림픽 대회 및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공식 휘장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변형을 거쳐 현재의 3색 휘장(아지토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엠블럼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사용해 한국 전통의 색감을 살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색은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넘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한글 단어 '평창'의 'ㅊ' 모양을 나란히 배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표현 했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엠블럼 속 세 가지 모양의 직사각형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 사고방식을 표현하며, 이들의 조화를 통해 '다양성의 화합'이란 메시지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서로 돕고 존중하면 능력이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성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패럴림픽의 참된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베이징 2022 동계 패럴림픽 공식 엠블럼 이름은 'Leaps 도약'은 '날다'라는 의미의 한자 飞를 예술적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선수가 결승선과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엠블럼은 또한 장애를 지닌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탁월한 결과를 내고 세상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패럴림픽의 비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엠블럼은 금색 올림픽 불꽃, 금색 마리안느 얼굴, 패럴림픽 원(아지토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색 올림픽 불꽃은 스포츠의 열정과 우정, 우수성을 상징하며, 금색 마리안느 얼굴은 프랑스가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자유, 평등, 박애)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패럴림픽과 올림픽의 로고와 색상이 같은 엠블럼으로 '자유, 평등, 박애'에 장애와 비장애인이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픽토그램(총 22종목) 18종목 대한민국 출전!

보치아	골볼
↑ 위 2종목은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탁구	사격
배드민턴	사이클
수영	양궁
육상	역도
휠체어 농구	유도
휠체어 테니스	조정
휠체어 펜싱	카누
태권도	농구

우리 학교에 국가대표 선수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에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를 초청합니다.



- 일 시: 11.29.(금) 2~3교시
 - 장 소: 도서관
 - 내 용: 류은환 선수의 삶 이야기,
다양한 펜싱 장비 체험하기
- ※ 싸인 받을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

★아지토스(Agotos)란?



올림픽이 올림픽을 상징하듯 패럴림픽의 상징은 '아지토스(Agitos)'입니다. 아지토스는 라틴어로 **'나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체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을 상징합니다. 아지토스는 선수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초록**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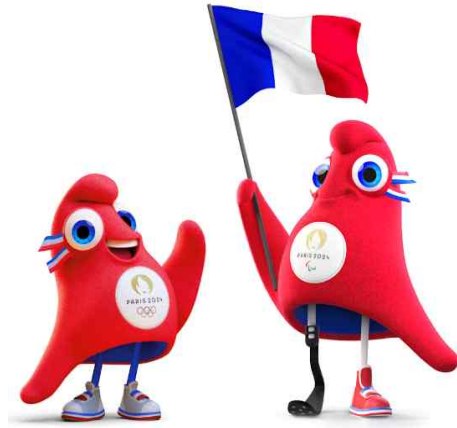
2024 파리 패럴림픽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소개 영상



개회식
하이라이트
영상



★마스코트 '프리주'



(이미지 출처: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 프리주와 패럴림픽 프리주는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로서 프리기아 모자로부터 탄생했으며, 프리기아 모자는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되면 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자유의 상징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자유 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주는 프리기아 모자를 의인화시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모자의 뒤편은 팔로, 모자 끝은 앞으로 접혀 이마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다리, 눈, 입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프리주는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며 **패럴림픽 프리주는 왼쪽 운동화가 빨간색이며 오른쪽은 검은색 달리기용 의족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번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패럴림픽 최초로 장애를 드러낸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패럴림픽 소식

강릉시청 박진호 선수, 파리 패럴림픽 10m 공기소총 '금메달'

대한민국 사격 간판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박진호 선수가 2024 파리패럴림픽 10m 공기소총 입사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진호는 지난 8월 31일(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249.4점을 쏘 예르킨 가바소프(카자흐스탄·247.7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18명 중 전체 1위(624.4점)로 가볍게 통과한 박진호 선수는 결승에서 초반에 9점대를 쏘아 6위까지 떨어지며 다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슈오프에서 10.5점대 이상을 격발하며 안정세를 찾아 1위를 탈환하며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박진호 선수 경기 영상



(이미지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이 종목이 궁금해요! 보치아



보치아는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내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이 주어집니다. 개인전은 4엔드 경기로 치러집니다. 공을 던질 때는 직접 손으로 던질 수도 있고, 비장애인 선수의 도움을 받아 마우스 스틱이나 홈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이며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볼링과 비슷한 스포츠로 소개되었고, 후에 1984년 하계 패럴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치아는 보치아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주관하며, **골볼과 함께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패럴림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치아 종목의 모든 선수는 휠체어를 타고 경기하며 뇌성마비 등의 사지 및 운동 기능 장애를 가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치아 종목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호원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 보치아팀은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종목 설명 영상. 패럴림픽 종목을 더 알아보세요↑)**



-----<----- (가위로 잘라주세요) <퀴즈 이벤트> (가위로 잘라주세요) ----->-----

* 11월 27일(수)부터 11월 29일(금) 오전까지 다솜반 응모함에 제출해 주세요.

* 모든 문제의 정답은 이 소식지 안에 있습니다! 제출한 학생에게는 ★**금메달 초콜릿**★을 증정합니다.

()학년 ()반 이름:

문제		답란
1	픽토그램을 보고 어떤 종목인지 명칭을 적어주세요.	
2	다음 설명을 읽고, 어떤 종목인지 명칭을 적어주세요.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로,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내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이 주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휠체어를 타고 경기하며 뇌성마비 등의 사지 및 운동 기능 장애를 가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3	2024 파리 패럴림픽 슬로건을 적어주세요.	